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성전'(히에론) : 성전은 오래도록 하느님의 현존을 담는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전통적인 관념을 기어이 전복합니다. 돌과 금으로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예수님-그분의 몸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멀리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숨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입니다. 삶은 그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 머무시기 위해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삶은, 감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룩한 성전입니다.

♣ 2025년 희년 성지 순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시고 도움주신 회장님 이하 사목위원분들과 참여해주신 신자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자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고타르도 성당 주임이셨던 다리오 신부님께서 은퇴하시고, 마르코 에우제니오 신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18시에 산 고타르도 성당에서 마르코 신부님 환영 미사가 있습니다.

♣ 회의 / 모임

- 사목 회의 : 11월 09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 회의 : 11월 16일 (차주) 미사 후, 오라토리오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9일)	다음 주일(11월 16일)
1독서: 안희관 요셉	1독서: 현상휘 루치아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2독서: 박지숙 레아
복 사: 김사빈 엠마 / 안태리 소화테레사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정이한 다윗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1월 9일

(백)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평신도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 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에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강물이 즐기 즐기 . 하느님의 도성 을 . 지극히 높으신 분의 . 거룩한 거 . 처 를 . 즐 겁 게 하 네 .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47,1-2.8-9.12)

그 무렵 천사가 1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2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8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9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12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앞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3,9ㄴ-11.16-17)

형제 여러분, 9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10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17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복음 (요한 2,13-22)

13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불러일으키시어, 창조된 모든 것을 저마다의 모습대로 지키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피 주시어,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평온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본당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천상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 주셨으니

오늘 이 성사에 참여한 저희가 은총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